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김장김치 · 생필품 '큰 나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읍 지역사회의 나눔 온도는 더욱 뜨거워졌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5일 정읍공설운동장 내 장애인테니스장에서 '정읍사랑 행복나눔잔치'를 열고, 4,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모아 관내 취약계층 1,215세대에 김장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정읍사랑 행복나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 홀로 사는 청장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설·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215세대를 위해 약 9725kg에 달하는 김장김치와 양말, 마스크 등 필수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사회단체, 기업, 종교단체, 독지가들과 협력해 겨울철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누적 3,0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약 4,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이 준비돼 더욱 풍성하고 규모 있는 나눔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동부신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주동부신협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지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신협은 최근, 임실군 춘향로에 위치한 임실N양념가공김치 체험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먹거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장 행사에는 전주동부신협 홍보위원과 임직원 등 15명이 이른 아침부터 함께 모여 정성을 담아 김장을 담갔다.

이들이 직접 버무린 김치는 총 150포기로, 전북장애인협회에 전달됐으며 협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따뜻한 식탁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전주동부신협은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행복빵빵 사랑나눔'을 진행했고, 27일에는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통해 겨울 이불 20채를 중화산2동 동사무소에 기부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 역시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이다.

인옥순 이사장은 "올해부터 조합원과 지역 이웃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유일필터 송상현 대표, 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 기탁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봉남면 출신 자동차필터 전문업체 ㈜유일필터(송상현 대표)가 5일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2,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유일필터를 경영하고 있는 송상현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의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 500만원씩을 기탁해 오고 있다.

송 대표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만큼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더욱 힘들어할 고향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성희 봉남면장은 "매년 이어온 이웃을 위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나눔 실천이 우리 지역에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요촌동 지사협, 연말연시 네 번째 반찬나눔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만종)가 5일 올 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사협은 지난 3월, 5월, 9월에도 계절별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을 관내 독거 장애인, 장년, 어르신 등 70세대에게 지원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12월 사업에서도 협의체 위원들은 김장김치와 밑반찬 4종을 만들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추운 겨울 안부확인 및 온기를 전했다.

김만종 위원장은 "저희가 준비한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살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요촌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평생 모은 돈, 정읍 후배 위해 아낌없이 나눠

박순덕 여사, 행상과 폐지 주워 모은 돈… 누적 2억 4000만원 장학금 기부

평생 행상과 폐지, 빈 병을 주워 모은 돈을 고향의 학생들을 위해 내놓은 '기부 천사'가 있다.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출신 박순덕(89) 여사의 이야기다.

박 여사의 손은 거칠다. 평생을 노동과 가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건넨 나눔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박 여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누적 기부액만 약 2억 4000만원에 달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난 탓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박 여사. 고향의 후배들만큼은 돈이 없어 꿈을 접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 간절한 마음이 차곡차곡 모인 돈을 선뜻 내놓게 만든 원동력이다.

박 여사의 기부는 2021년 6월에 고향인 칠보면을 찾아 3550만원을 전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듬해인 2022년 5월에는 1억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고향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4월 3000만원, 올해 4월 2600만원을 칠보면에 기탁했고, 지난 7월에는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을 기념하며 또다시 4000만원을 보탰다. 자신의 영광마저 고향과 나누려는 깊은 뜻이었다.

박 여사의 나눔은 지역 사회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동을 일으켰다. 칠보면은 그녀의 뜻을 기려 2023년

부터 박 여사를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박 여사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박순덕 여사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지만, 나누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한다. 남은 시간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하며 살겠다는 그녀의 다짐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학수 시장은 "박순덕 어르신의 숭고한 뜻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5회 한국여성농업인 무주군연합회 가족수련대회 개최

무주군은 5일 설천면행정복지센터 2층 백운마당에서 제5회 한국여성농업인 무주군연합회 가족수련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사)한국여성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노미성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농업인 강령'을 복창하며 △수입 개방 등 농업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선진 농업정보 공유 및 효율적 농업경영 실천 등을 다짐했다.

이정선 (사)한국여성농업인 무주군연합회 회장은 "농업과 가사라는 이중고를 감당하면서도 회원 모두가 매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한마음대회를 계기로 하나 되는 무주군연합회,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이 되자"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경자 (사)한국여성농업인 무주군연합회 회원과 김완숙 회원, 이채민 회원이 우수회원에 선정돼 무

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정정애 설천면 회장이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정태숙 회원과 문은옥 회원이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윤수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팀장과 이은주 무주농협 상무가 (사)한국여성농업인 무주군연합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월랑원광어린이집,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월랑원광 어린이집(원장 이정희)은 지난 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기부금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바자회 행사 등 원내 활동을 통해 직접 모은 수익금에 더해 교직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정희 원장은 "아이들의 작은 힘이지만 기부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모은 소중한 정성이기에 더욱 값지고 감동적이다"며, "기탁 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월랑원광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한돈협회 장수지부, 장수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은 (사)대한한돈협회 장수군지부(지부장 방대섭)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77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장수지역 한돈사랑 장학지원' 사업으로 활용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중 초·중·고·대학생이 있는 20세대를 선정해 세대당 38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장학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 주천면, 경주 내남면과 상호교류 행사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 4일, 자매결연 지역인 경북 경주시 내남면을 방문하여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상호 교류 활성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주천면 기관사회단체장 및 발전협의회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남면에서도 기관사회단체장 및 직원 30명 등 총 60명이 함께하여 양 지역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했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영·호남 지역 간 상생 협력과 지역문화 홍보 등 실질적인 지역 교류의 의미를 되살린 자리로 평가되며, 남원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도 함께 홍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노환순 주천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우리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준 내남면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천면과 내남면의 우호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전 군산지사, 지역 아동 · 청소년에 따뜻한 손길

한국전력 군산지사가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앞장섰다.

한전 군산지사는 지난 4일, 군산 일맥원을 찾아 입소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진행됐다. 군산지사는 이 기금으로 약 16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마련해 아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나눔이 된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황수동 지사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한전 군산지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 군산지사의 꾸준한 나눔 실천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인관계증진 집단 상담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063-633-1977)는 지난 4일까지 원천초, 보절중, 용북중, 인월중, 남원중 등 총 5개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친구 관계에서의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향상을 주제로 학생들이 또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도록 구성했다.

정일신 센터장은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형성은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

부안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홍)는 지난 4일 주민자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주민자치 위원회 및 주민차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주요 활동 보고 있었다. 그리고 2026년 수강생 및 강사 모집에 관한 심의 안건 토의 및 종강 관련 토의를 했다.

한홍 위원장은 '제10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적극적인 위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나아가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